



Boords



1 1980년대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는 10년쯤 미국에 긴 이민자들이다. 그들은 LA의 한인촌에 살다가 아칸소 주로 이사갔다. 남편 제이콥이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트레일러 집에 이삿짐을 풀고 새 삶을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노래

제이콥: "흠 색깔 좀 봐 이것 때문에 여기로 온 거야."



2 제이콥은 다른 농부들과 달리 다우징 로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농기구를 사러간 제이콥은 폴이라는 인물을 만나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다는 것 때문에 인연이 생겨 농사를 함께 짓자는 약속도 하게 된다.

농사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밝은 노

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3 두 부부는 한국에서 모니카의 어머니를 모셔가기로 한다. 둘다 돈을 벌러 나가무르 심장병이 있는 데이빗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빗은 실망한다. 욕쟁이 순자는 할머니는 자상할 것이라는 동심을 완전히 빗나간 외할머니였기 때문이다.

할머니인 순자를 향한 아이의 귀여운 미움이 담긴 노래

데이빗: "할머니랑 같이 쓰기 싫어요."



4 순자와 데이빗이 같이 지내며 마음을 열고 할머니를 받아들일게 되었지만 갑자기 순자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농사일에 몰두하고,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바깥일도 해야하는 모니카는 삶의 힘겨움을 느낀다.

나쁜상황이 반복되며 모니카의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노래

앤: "엄마, 다 괜찮을 거예요."



5 지쳐버린 모니카는 결국 결별을 선언한다. 더구나 가족들이 없는 사이 순자는 쓰레기를 태우려다가 농작물 저장고까지 다 태워버리게 된다. 그래서 순자는 죄책감으로 가족을 떠나려 하지만 데이빗이 붙잡는다. 일이 잘 풀리려는 때에 오히려 가족들은 분열하고 온갖 나쁜 일이 다 겹쳐서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가족들은 힘을 합쳐서 불을 끄려고 노력한다.

순자의 죄책감과 가족들의 좌절감을 담은 노래

데이빗: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요."



6 결국 다시 농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제이콥은 보통의 농부들처럼 다우징 로드를 사용하며 시골에 점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데이빗과 함께 냇가에서 미나리를 발견하고 수확하게 된다. 그것은 순자가 심은 것이었다. 즉 미나리라는 영화는 온갖 고난에도 곳곳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제이콥의 가족들을 위한 노래

순자: "미나리는 어디에 있어도 알아서 잘 자라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 줘"